

## “故 박희민 목사님, 천국의 안식을 누리소서”

고 박희민 목사 장례예배,  
나성영락교회장으로 거행

고 박희민 목사의 장례예배가 11일 오전, 고인이 제2대 담임목사로 시무하던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거행됐다.

장례 예배에 참석한 남가주 교계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던 고인의 아름다웠던 삶을 추모했다. 성도들은 추모 영상 속 고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고인이 보여준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가슴에 담았다.

장례 예배는 박은성 목사의 집례로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의 설교로 진행됐다. 이어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와 강용훈 목사(샌디에고한인연합장로교회)가 추모사를 전했다. 이정욱 장로(기쁜우리교회)가 추모가를 불렀다. 축도는 고 박희민 목사의 형인 박희소 목사(뉴욕 동부교회 원로)가 했다.

“천국에 예비된 영광 된 면류관”(딤후 4:6-8)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강준민 목사는 “제 생애에서 고 박희민 목사님의 장례예배 말씀은 전하는 오늘이 가장 영광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박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



박은성 목사가 나성영락교회장으로 거행된 고 박희민 목사의 장례예배를 집례하고 있다. ©기독일보

은 선한 목자였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셨다”고 회고했다.

강 목사는 이어 “고 박희민 목사님은 목회자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품에 안기고 싶었던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였다.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전 세계에 수많은 제자들을 남기셨고, 선교적인 삶으로 수많은 교회와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남기셨다”며 “목사님의 생애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삶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강 목사는 또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천국을 경험하셨고, 소유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이요. 박 목사님의 영혼은 언제나 고요하셨고, 가시는 곳마다 화평과 평화가 임했다”며 “선한 싸움을 마치고 승리하신 박 목사님을 따라 화목과 성숙과 하나 됨을 이루자”고 권면했다.

박은성 목사는 “고 박희민 목사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고, 우리가 많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었다”며 “박 목사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사역을 기억하고, 남겨진 과업

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자”고 전했다.

대표기도한 김경진 목사는 “큰 산과 넓은 바다와도 같았던 영적 거인 고 박희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열정과 헌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며 “모든 목회자들의 귀감이 되셨고, 어두운 밤에 찬란한 별과 같은 목사님의 그 믿음의 경주를 따라 걸으며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길 소원한다”고 기도했다.

추모사를 전한 송정명 목사는 “고인께서는 1960년대 말, 해외 선교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나가셨다. 고인은 지구촌 구석구석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셨다”며 “넓은 가슴으로 영혼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묻어있는 삶을 사셨다”고 회고했다.

강용훈 목사는 “고 박희민 목사님은 사랑과 온유, 겸손과 인내의 리더십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셨다”며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다”고 추모했다. 김동욱 기자

## ‘9명 사망’ 미 델러스 총기난사...추모 예배에 수백명 참석

한인가족 3명 사망...

범인은 전직 보안요원 33세 남성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지역 주민과 경찰, 공무원 등 수백여 명이 교회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추모 기도회를 가졌다.

총격이 발생한 ‘알렌 프리미엄 아울렛’ 인근의 코튼우드크릭교회(CottonWood Creek Church)에는 7일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 덴 패트릭 부주지사, 켄 팩스턴 주 검찰총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과 추모객이 예배에 참석했다.



지난 5월 7일 텍사스 앨런의 코튼우드 크릭교회에서 사법부 관계자들이 철야 기도를 하고 있다. ©코튼우드 크릭교회

켄 폴크 앨런 시장은 참석자들에게 “앨런 시와 10만9천명 주민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앨런을 집으로 부를 수 있어 자랑스럽다. 진

절하고 자비로운 시민들로 가득 찬 곳이다. 우리는 충격에 빠졌고 모두 함께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튼우드크릭교회의 그레마 골딩 교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주제로 한 고린도후서 1장 3-4절을 낭독하며, 사태 수습을 위한 기도를 촉구했다.

존 마크 카튼 담임목사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살해’부터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에 대해 전하며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더 나은 곳, 더 나은 지역사회, 더 나은 아이들을, 더 나은 가정을 갈망한다고 믿는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추모 예배와 기도,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카튼 목사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도입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해야 한다. 그분은 애용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셨다”며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슬픔의 공간에 기쁨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지난 6일 오후 델러스 총기난사 범인은 쇼핑몰에 있던 당직 경찰관에게 의해 사살됐다. AP통신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총격범이 33세 남성인 전직 보안 요원 마우리시오 가르시아인 것으로 보도했다.

사망자 중에는 한인 교포 부부와 이들의 3살 난 차남이 포함됐으며, 6살 된 장남은 부상을 당해 치료 중이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지오앤디교회  
Go&Disciple Church

**아름다운 소식**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1)

**2023 지오앤디 교회 부흥집회** 초청목사: 임진혁 목사 (마가의 다락방 교회)  
5.19 (금 / 8PM) 5.20 (토 / 7PM) 5.21 (일 / 12:30PM)  
GO&D (지오앤디) CHURCH 3021 BLUME DRIVE ROSSMOOR CA 90720  
문의전화: (714)745-8044, (562)656-4175

# 미주한인교회사 출간, 120년 미주한인교회 역사 편찬

### KCMUSA, 남가주 교계 목회자들과 출판 감사예배 드려

최근 '미주한인교회사'를 발간한 재미한인 기독교선교재단(KCMUSA·이사장 민종기 목사)이 지난 9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출판감사예배를 드렸다.

미주한인교회사는 872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가 1903년 호놀룰루 항구의 한 주택에서 드린 창립 예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인교회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미주한인교회사는 미주한인이민 120주년을 기념하고 미주한인교회의 신앙 역사를 한인들에게 올바르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2021년 11월부터 창간 준비를 시작했다.

고 박희민 목사(발행인)와 조명한 목사(출판위원장)는 김찬희 박사, 박동건 목사, 심상은 목사, 오세훈 목사, 이상복 목사, 이승종 목사, 이창민 목사, 남중성 목사 등 10명의 목회자를 출판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뒤 편찬 작업에 돌입했다.

교회사 전문가, 각 분야 전문 목회자, 50개 주 최초한인교회 목회자, 각 교단 관계자 86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책은 크게 4 부분으로 나눠 구성했으며, 이민교회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중점을 뒀다.

초기 미주한인교회사(1903년~1970년)를 다룬 파트 1은 김흥기 박사가 미 전역 대

도시를 돌며 각 교회 관계자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부흥의 꽃을 피우며 미 전역으로 퍼진 한인교회사'(1970년대~현재)란 제목의 파트 2 집필에는 조명한 목사, 김찬희 박사, 진정우 박사, 백승철 목사, 이승종 목사, 김정환 선교사, 남철우 목사, 박준호 박사 등이 참여했다.

파트 3은 "미 50개 주 최초 교회사"로 앨라배마부터 와이오밍 주까지 미 50개 주에 걸쳐서 최초 교회들의 역사, 파트 4는 "한인교회들이 많이 소속된 교단사"로 미국 내 한인 목회자들의 연합활동을 담았다.

특히 120년 미주한인교회사를 사진 1,008장과 함께 고스란히 담아내 기록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높였다. 또 백여 개 교회의 역사 및 와 각 기독교단체들, 26개 교단의 역사도 수록했다. 50개 주로 뻗어나간 최초의 한인교회들을 찾아 그 교회의 역사를 담아냈으며, 미주지역 한인교회음악사, 한인기독교문학사, 한인선교역사, 한인기독교방송사, 한인기독교인론사도 다뤘다.

미주한인교회사는 한국 쿠팡출판사를 통해 제작됐으며, 한국에서는 에스24, 갓피플, 두란노물, 사랑방서원, 생명의말씀사, 성남예수마을, 영풍문고 등의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 대형교회와



미주한인교회사 출간감사예배 기념촬영 ©기독교일보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됐다. 또 하버드, 예일대, UCLA, USC 등 미 전역의 약 40개 유명 대학에 있는 한국학 연구소 또는 아시아센터에 기증됐으며, 미주 내 신학교와 도서관에도 배포되고 있다.

KCMUSA는 "첫 한인 이민자가 하와이에 도착한 때가 1903년 1월 13일로 올해 120주년을 맞았다.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는 해에 미주한인교회사를 출간하게 되어서 기쁘다"라며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오늘의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CMUSA는 "미주한인교회사는 초기 한인교회사뿐 아니라, 1980년대 이후 놀랍게

성장한 한인교회들의 역사를 담고 있다"며 "역사적 자료가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서 한인 교회를 배우거나 관련 논문을 쓰는 학생들, 미주 한인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한인이민교회 역사 관련 세미나에 참가자료를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CMUSA는 2세를 위한 영문 '미주한인교회사'도 발간할 계획이다. KCMUSA는 "한글을 모르는 세대에게 한인교회를 지켜온 한인 기독교인의 신앙 역사에 대해 들려줄 계획"이라며 "영어권 세대가 미주한인교회사를 통해 한인 교인의 강인한 믿음과 헌신을 유산으로 물려받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 월드미션 대학교 음악과, 제28회 학생음악 축제 열린다

5월 12일(금) 오후 7시 30분, LA 다운타운 소재 지퍼홀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오는 12일(금) 오후 7시 30분, LA 다운타운 소재 지퍼홀에서 제28회 학생음악 축제를 개최한다.

매 연주회마다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인상 깊은 무대를 선사해 온 월드미션대학교 학생음악 축제는 올해도 "협주곡 갈라 콘서트(Concerto Gala Concert)"라는 제목으로 감동의 연주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연주회는 미국 영화음악의 거장 존 윌리엄스의 "윈들러 리스트" 모음곡을 비롯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랄로의 첼로 협주곡 등 서정적이고 낭만적 선율로 청중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장 윤임상 교수는 "본교의 학생음악회는 지난 16년 동안 지역 사회 음악 문화 사역을 섬기는 큰 교두보 역할을 감당해 왔다"며 "상큼한 봄 내음이 가득한 계절에 아름답고 낭만적인 연주회에 LA 교민 여러분들을 초대한다"고 전했다.

공연 및 티켓 문의는 전화 213-388-1000으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 설립 41주년 맞은 방주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다짐



©방주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예배

방주교회(담임목사 김영규)가 설립 41주년을 맞아 지난 7일(주일)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방주교회 성도들은 지난 41년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김영규 목사의 인도로 김동욱 목사가 대표기도하고 류근남 집사가 사도행전 6장 1-9절을, 임이

남 장로가 베드로전서 2장 2-10절을, 송영화 집사가 요한복음 14장 1-14절을 본문으로 각각 성경을 봉독했고, 안원기 전도사의 특별찬송이 이어졌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영규 목사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41주년을 맞았다"면서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자. 최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교회다. 우리가 그리스천이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라고 인정받는 방주교회 성도들이 되자"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안디옥교회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며 영적으로 해결했다.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들을 일할 수 있도록 높여주고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럴 때 교회는 왕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제자의 수를 더하시게 된다. 입술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방주교회 성도들이 되자"고 권면하고 도전했다.

모든 예배는 김영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방주교회는 올해로 13년째 LA중앙루터교회에서 노인 300명에게 '사랑의 점심'을 제공하는 섬김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T:213-663-3301

김민선 기자

## 유재명 목사 초청부흥집회

**주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

**일시: 5/19(금) - 5/21(주일)**  
**장소: 주님의영광교회 비전센터(본당)**  
**문의: 행정실(213-749-4500)**

**안산빛나교회 담임**

- 5/19(금) 7:30pm 믿음이 주는 축복(창22:14)
- 5/20(토) 6:00am 믿음이 믿음이 되는 원리(롬1:16-17) 7:30pm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창6:5-14)
- 5/21(주일) 1부 8:00am, 2부 10:30am, 3부 1:00pm 뜻을 품은 다니엘(단1:8-9)



**주님의영광교회**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 김윤진 간사 찬양간증집회

**일시: 6/2(금) 7:30pm**  
**장소: 주님의영광교회 비전센터(본당)**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90015

**김윤진 간사**  
(전) 한성교회 예배인도자  
한성 라이브워십 예배하는 이에게 정규 1집 앨범 발매 당일 찬양인도자로 유튜브 1억뷰 달성



# “주여 회개하오니, 미국을 회복하소서”

## ‘제72회 국가 기도의 날’ 남가주 연합기도회 열려

“미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버린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소서. 미국 50개 주마다 에즈베리 대학에 일어났던 대부흥을 보내주셔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성경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특히 미주 한인 교회들이 미국의 부흥과 회복에 주도적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미국 남가주 한인들이 미국의 회개와 영적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된 2023 국가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기독일보

남가주 지역 한인교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제72회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지난 4일,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 모여 미국의 성경적 리더십 고취와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다.

국가기도의 날을 준비한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는 미국이 당면한 영적 위기를 알리며 신앙인들의 회개와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속화된 신앙을 회개하고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간구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국가 기도의 날은 미국의 회개와 부흥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인, 법조인들, 캘리포니아주의 행정관, 군 지도자와 공무원들이 하나님 편에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또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과 부흥,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복음 전파, 반성경적 가치관에 물든 미국의 당면한 현안 문제들, 한인 2세들의 정체성 진찰 및 인종화합, 또 윤석열 대통령을 통한 대한민국의 재건과 발전,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송정명 목사는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미국은 하나님과 성경을 사랑했고, 가정에서는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필수로 가르쳤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어려움 당한 나라들을 섬김과 세계의 존경을 받았다”며 “건국 선조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미주 한인 크리스천들이 제2의

청교도의 꿈과 사명으로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은 도덕성과 정직성으로 존경받는 민족 되길 소망한다”며 “특히 한인 2세들이 미국의 기독교계와 정치계,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 사업계의 리더들이 되어 미국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도록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국윤권 목사(중현선교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의 기도예배에 이어 진유철 목사가 “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행 12:5)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진유철 목사는 “미국 사회 전반 걸쳐 도덕적 타락과 인종 갈등, 총기 사고가 난무하다. 낙태와 동성결혼 합법화 등 미국의 비기독교화, 탈기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앞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과 열방을 살리실 것”이라고 전했다.

진 목사는 “우리의 환경은 어둡고 다양한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것”이라며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해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고 독려했다.

2부 기도회는 △회개운동과 회복을 위하여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미국 청교도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미국의 당면한 현안 문제들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태광 목사(월드쉐어USA),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가 진행했다.

김동욱 기자

## 민중기 목사 KCMUSA 신임 이사장 취임



KCMUSA 신임 이사장 취임식에서 답사를 전하는 민중기 목사 ©기독일보

### “목회자와 교회, 성도 섬기며 선교적 사명 감당할 것”

MUSA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인 이민 사회와 한인 이민 교회를 섬기고, 세계 교회를 위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인터넷 선교 역시 기술발전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KCMUSA의 인터넷 선교는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연합, 부흥 운동의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 목사는 또 “KCMUSA는 미 전역에 산재한 190만 8천 명의 한인 이민자들이자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 약 3천여 개 교회들을 하나로 연결해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제시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도록 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감사예배는 김준식 목사(남가주살롬교회) 사회로 국윤권 목사(중현선교교회)가 기도,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가 성경봉독 후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 16:15-16)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 목사는 “KCMUSA를 통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가 유익을 얻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교우들이 연합해 놀라운 열매가 맺힐 것이라 믿는다”며 “KCMUSA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민중기 목사님과 함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에 이어진 이사장 취임식은 장동일 목사(뉴욕모자이크교회)의 사회로 고 박희민 목사를 대신해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민중기 목사에게 이사장 추대와 위임장을 증명했다.

이어 최영봉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53대 회장), 박문규 박사(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축사를 전했다. 또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과 김장교 목사(대구 서성교회)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취임식은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민중기 목사(중현선교교회 원로)가 지난 8일, 재미한인기독교재단(KCMUSA)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LA 코리아타운 소재 옥스포드팰레스 호텔에서 열린 KCMUSA 신임 이사장 취임식에서 민중기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남가주 한인 교계 목회자들과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민중기 목사의 이사장 취임을 축하했다.

민 목사는 취임사에서 “KCMUSA에는 고 박희민 목사님께서 20년 동안 사역해 온 흔적이 담겨있는데, 고 박희민 목사님의 귀한 사역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섬기겠다”며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창립된 KC-

# 은혜 창립기념부흥성회

##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룻기 1:6-14)

### 2023. 5.18(목) ~ 21(주일)

18(목) 7:30pm / 19(금) 5:30am, 7:30pm / 20(토) 6:00am, 7:30pm  
21(주일)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4부 11:30am

**강사 : 이승희 목사** (대구 반야월교회)  
**장소 :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이승희 목사 프로필 & 저서**

**현) 반야월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역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역임  
마틴 루터킹 특별상 수상(2019)  
캄보디아 국왕 훈장 수훈(2018)  
대한민국 국민대상 자랑스러운 목회자상 수상(2017)

- 통곡이 끝나고 비로소 웃다 (두란노)
-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 (두란노)
- 삶의 회복이 필요한 그대에게 (생명의 말씀사)
- 하나님과 함께 걷다 (생명의 말씀사)
-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인가 (의투스)
- 기도, 행복을 퍼올리는 두레박 (기독신문사)
- 고통을 알면 행복이 보입니다 (기독신문사) 등

**41 YEARS 1982-2023**

주일 | 1부 7:30am, 2부 9:20am, 3부 11:30am, 4부 2:00pm | 금요일성경침회 7:30pm | 새벽예배(일천번제) 월~금 5:30am, 토 6:00am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 TEL: 714.446.1000 | www.gracemi.com

#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삽니다”

## 제8기 가정선교 세미나 이재근 목사 강사로 열려

미주 가정선교회(대표 이재근 목사)가 주최한 제8기 가정선교 세미나가 지난 6일 세리토스에 위치한 생수의강선교회(담임 최형규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정 선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가정 문제의 해결 방안이 논의 됐다. 참석자들은 가정을 지키고 세우며, 가정 선교사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세미나를 인도한 이재근 목사는 가정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아버지의 권위와 가정 질서의 회복, 온전한 가정 예배의 정례화를 제시했다.

또 가족 간의 원만한 대화,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 가정 내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도



제8기 가정선교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우심을 추구할 것을 조언했다.

이재근 목사는 “가정 선교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회와 시대의 요구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이라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켜 복음화하는 것이 가정 선교의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이 목사는 “가정은 창조 질서를 바탕으로

한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질서와 사랑을 배우는 교육 공동체”라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했다.

그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성경적 권위가 바로 서야 하고, 아버지는 가정을 안정되게 돌봐야 한다”며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배려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이어 “가정 선교는 십자가 도를 기반으로 가정과 교회의 협력을 통해 완성된다”며 “온전한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가정 선교야말로 가장 시급한 목회 현상이며,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 비영리단체 위한 재정보고 무료 강좌



비영리 단체 설립 및 세금 면제 무료 공개 강좌 ©기독교일보

퀵온라인을 이용한 비영리 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세금 보고 및 그랜트 신청을 위한 재정보고 무료 강좌가 5월 13일(토) 12시 옐로우 카운티 플러튼 소재 은혜한인교회 미라클 센터 MC 310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의는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에서 주관한다.

5만불 이하의 비영리 단체는 990N과 같은 간편 폼으로 연간 세금보고가 가능하나 5만불 이상의 Gross Income인 경우 별도 재정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히 비영리 단체를 위한 그랜트 신청에 있어서 재정보고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번 강의에서는 퀵온라인을 활용하여 비영리 단체의 은행 구좌와 연동하여 거래내역이 자동 연결하여 손쉽게 수입과 지출내역을 정리하고 재정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설명 될

예정이다.

강의는 한인 커뮤니티 및 교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준비됐으며 비영리 단체 세금보고와 그랜트 신청에 관심이 있거나 효과적인 운영을 원하는 목사, 선교사, 신학생, 전문인, 학교, 비즈니스 선교, 비영리단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의를 담당하는 제임스 구 교수는 현재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미디어 및 IT 담당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대표로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매년 2-3회에 걸쳐 커뮤니티를 위해서 비영리 단체 설립, 운영 및 회계에 관련한 무료 강의를 주관했다.

문의는 icmm@churchhomepage.org 혹은 714-393-4595로 하면 된다.

## 미주연세조찬기도회 개교 138주년 기도회 가져



미주 연세조찬기도회

미주 연세조찬기도회(회장 정요한 목사)가 8일(월) 에너하임 소재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개교 138주년 기념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는 연세동문 40여명 참석한 가운데 정요한 목사 사회 아래 서문준 이사장의 대표기도, 최계희 권사의 성경봉독, 이명선 목사의 설교, 여성합창단의 특별찬양(지휘 권영대 목사),

미주총동문화 고동호 부회장의 환영사와 남가주동문화 이종한 회장 인사 말씀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도회는 조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 지용덕 목사(연세아카데미 원장), 모교 연세대학교 발전을 위해 - 이태섭 회장(전 미주총동문화 회장), 연세대학교 동문들을 위해 - 천진석 목사(살림교회 담임목사), 한인 커뮤니티 성장과 발전을 위해 - 백은학 장로(미주성서화운동본부 홀리클럽 회장), 우리 자녀들과 차세대를 위해 - 신명균 목사(전 OC시민권자협회 회장) 등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했다.

##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 가족 늘노래 합창단

## 첫번째 정기연주회

Spring Concert

지휘 / 전 성진  
반주 / 신 혜영

일시 : 2023년 5월 21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Huntington Beach Korean Church

8121 Ellis Ave., Huntington Beach, CA 92646

후원 : Huntington Beach Korean Church, 로템장로교회

Korean Veterans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 남서부지회

문의 : 공 영옥 단장 (562)292-9955

# 서울시, 쿼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지난해 7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쿼어문화축제가 열리던 모습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5.3) 오전, 갑작스럽게 열린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어 “7월 1일 서울광장에서는 기독교 단체가 주최하는 ‘청소년 청년 회복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광장 사용이 제한됐던 2020·2021년을 제외하고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조직위 측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 기간인 6일을 하루로 줄이고,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 등을 금지한다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했다.

김진영 기자

## 국민 약 70% “서울광장 쿼어축제 부적절”

전국민 18세 이상 남녀 1,008명 대상으로 진행해 약 75%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아냐” 동성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가 다수

이에 대해서는 74.8%가 그렇지 않다고, 15.7%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최근 서울시가 쿼어축제 주최측에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불허한 가운데, 국민들 절대 다수도 쿼어축제 장소로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대회장 오정호 목사) 준비위원회가 최근 굿모닝니언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쿼어문화축제 장소로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69.2%가 적절하지 않다고, 20.2%는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퀴어문화축제가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는

동성애자들이 주최하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는 57.6%가 들어 본 적이 있다고, 35.6%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62%가 반대, 26.8% 찬성했다. 동성애·성전환·사상·전과 등의 차별금지 사유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45.3%가 반대, 35.6%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3.1%), 응답률은 1.7%, 조사 방법은 휴대전화 RDD 100% ARS 조사 방식을 채택했다.

송경호 기자

## “원로목사 206명, ‘이런 한일관계 원한다’ 성명 발표”

### 사랑의나눔, 성명서 내용과 서명자 명단 공개

사단법인 사랑의나눔(이사장 서경석 목사)이 “한국의 대표적 원로목사 206명이 5월 3일 여의도 사랑의나눔 사무실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한일관계를 원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랑의나눔이 공개한 성명서 서명자 명단에는 김삼환·김진호·이영훈·소강석·김진홍·박위근·손인웅·김신규·길자연·이용규·조일래·지덕·김명혁·김상복·양병희·엄신형·권태진·박준준·이광선·최병두 목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 기독교는 일제강점기 때 3.1운동에 앞장서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숭한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 원로목사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회복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36년 간의 식민지 탄압을 절대 잊을 수 없고 이 恨(한)을 꼭 풀어야 한다. 그러나 죽창가를 부르며 일본과 적대한다고 恨이 풀어지지 않는다”며 “경제적, 문화적, 군사외교적, 정신적으로 일본을 능가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일본인과 한국인 누가 더 존경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당시, 윤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던 모습. ©대통령실

받는가다. 누가 상대방을 더 열심히 돕고 어려운 나라를 더 열심히 돕는가? 한국은 이런 정신수준이 아직 일본보다 높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했는데도 일본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 세계는 일본의 낮은 정신수준을 흥분 것”이라며 “2차 대전 후 독일은 자기 잘못을 철저히 반성했는데 일본은 정진대 문제조차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계는 아직도 일본을 흥분고 있지 않는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일본이 더 큰 결단으로 대응해서 한국 국민을 감동시키면 전 세계가 일본을 精神(정신)대국으로 높이 평가할 것”이라

고 했다.

이어 “더구나 한국은 기독교가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다. 그러면 기독교 정신이 외교에도 영향을 끼쳐야 한다”며 “일본이 어려움에 처하면 한국이 열심히 도와야 한다. 일제시대의 일본의 악행만 기억하지 말고 그동안 한국을 도와준 것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경제, 한국문화가 일본을 능가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일본과 共生(공생)의 길을 가야 한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크게 깨닫고 한국을 본받으면 그것이 진짜 勝日(승일)”이라며 “일본도 한국인의 존경을 받으려고 애써야 한다. 한국에 반복해서 사죄한다고 36년의 식민지배가 극복되지 않는다. 일본이 존경받는 精神(정신)대국이 될 때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완전히 극복하고 우애 깊은 형제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꼼꼼히 따져서 정부가 좀 더 국익을 챙기게 되면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 오정호 목사 아들 오기원 목사, 서울에 다문화권 교회 개척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호 목사의 아들인 오기원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

오기원 목사가 시무하는 뉴서울교회는 5월 1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백석중회 2층에서 ‘탄생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에서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설교하고,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가 축도하며, 데이비드 산 목사(미국 새들백교회 국제사역총괄)와 김하나 목사(명성교회 담임)가 축사한다.

이 교회는 “뉴서울교회는 서울의 모든 지역을 마음으로 품으며,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되고자 하는 교회”라며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 도시의 곳곳마다 나아감으로 지역민과 다문화권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뿐 아니라, 21세기의 아름다운 성경적인 순종의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로 예배를 드린다.

오 목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UC 샌디에고를 졸업하고 탈봇신학교에서 M.Div.를 받았다. 그는 애너하임 사랑의교회와 오렌지카운티 필리피교회에서 청년·영어부 담당 목사 등으로 섬겼다.



오기원 목사. © 뉴서울교회 소개 영상 캡처

송경호 기자

#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 1. 구독 서비스

엔지니어 없이 프로의 소리를!

- ❖ 1년에 4회 정기방문
- ❖ 연간 2회 무료 방문
- ❖ 음향기기 이력관리
- ❖ 기술상담 및 교육

### 2. 교회 방문

프로 엔지니어의 맞춤형 솔루션!

- ❖ 스피커 분석 및 세팅
- ❖ 장비 업그레이드 상담
- ❖ 유튜브 기술 상담
- ❖ 음향, 영상, 조명 설치

### 3. Solo시스템

태블릿 하나로 예배준비 끝!

- ❖ 모든 교회에 설치가능
- ❖ 와이파이 기반 서비스
- ❖ 강단에서 음향, 영상, 조명을 컨트롤 합니다

### 4. 상담 및 교육

비싼 미디어장비 제대로 활용하자!

- ❖ 전문가가 직접 방문
- ❖ 유지, 관리비용절감
- ❖ 고장 발생시 신속처리
- ❖ 미디어 사용법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dreammediaco.org

# CDC, 고등학생 4명 중 1명 “성정체성 혼란”…15% 증가

## 갤럽 조사, 美 성소수자 10년만에 2배 급증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미국인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그들의 성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CDC가 발표한 ‘청소년 위험 행동 감시 시스템’(YRBSS) 최신호는 2021년 고등학생의 74.2%가 “이성에게만 끌린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중 11.9%는 “양성애자”, 3.2%는 “게이 또는 레즈비언”, 9%는 “기타/탐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성애자가 아닌 성적 정체성을 가진 학생의 비율은 2015년 11%에서 2021년 26%로 증가했다. 이번 결과는 2021년에 수집된 학생 1만7천232명의 응답을 토대로 했다.

CDC는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퀴어·기타 성적 소수자’(이하 LGBTQ+) 청소년의 증가 원인이 “나의 성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다” 또는 ‘나의 성 정체성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라고 밝힌 학생들을 포함한 질문 문구의 변경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갤럽이 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



©Sergey\_Ko/ iStock

신을 성소수자(LGBT)라고 밝힌 미국 인구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Z세대가 자신을 이성애자가 아닌 “기타”로 분류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는 2022년 미국 성인 1만736명을 대상으로 ‘LGBT 공동체에 대한 미국인의 자가 식별(self-identification)’을 여론조사한 결과다.

1997년에서 2004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 성인은 이전 세대에 비해 자신을 성소수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Z세대 일원 5명 중 약 1명(19.7%)이 자신을 “LGBT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답했다. 반면, 자신을 LGBT 공동체와 동일시한 비율은 밀레니얼 세대가 11.3%, X세대 3.3%, 베이비붐 세대 2.7%, 침묵의 세대 1.7% 순이었다.

미국인 X세대는 1965년에서 1980년 사이의 출생자이며, 베이비붐 세대는 1946년에서 1964년 사이, 침묵의 세대는 1946년 이전 출생자로 분류된다.

성소수자라고 밝힌 Z세대 중 13.1%는 자신을 “양성애자”로, 3.4%는 “게이”, 2.2%는 “레즈비언”, 1.9%는 “트랜스젠더 성별”로 인식했으며, 1.5%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그

외에 LGBT”라고 답했다.

자신을 성소수자로 인식한 미국인은 2022년 7.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7.1%, 2020년 5.6%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갤럽이 ‘성소수자 식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첫해인 2012년에는 미국인의 3.5%만이 자신을 성소수자로 인식했다.

마찬가지로, ‘월튼가족재단’(WFF)과 ‘뮤머레이션’(Murmuration)이 2월 발표한 “Z세대 선거후 연구” 보고서에서 Z세대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또는 기타 형태의 퀴어”로 자신을 식별할 가능성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높았다.

조사에서 Z세대 응답자는 75%만이 자신을 “이성애자(heterosexual) 또는 이성을 좋아한다(straight)”라고 답한 반면, 26세 이상의 이전 세대는 92%가 동의했다.

또 자신을 “양성애자”로 인식한 Z세대는 9%인 반면, 이전 세대는 3%에 불과했으며, “게이”라는 응답자도 Z세대(2%)가 이전 세대(1%)보다 더 높았다. “레즈비언” 응답자는 Z세대 1%, 이전 세대는 1% 미만이었다. 특히 “기타 형태의 퀴어” 즉, 트랜스젠더나 논바이너리(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 3의 성)라고 밝힌 Z세대는 4%로 이전 세대(1%)와 큰 격차를 보였다.

김유진 기자

## 미 크리스천포스트, 복음주의언론협회상 4개 부문 수상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 이하 CP)가 올해 복음주의언론협회(Evangelical Press Association, 이하 EPA) 크리스천 미디어 컨벤션(Christian Media Convention)에서 4개의 상을 수상했다.

CP의 편집장인 리처드 랜드(Richard Land) 박사는 ‘월 스미스 사건: 그것이 중요한 이유’(The Will Smith event: Why it matters)라는 제목의 글로 사실 부문 2위를 차지했다. 랜드 박사는 스미스가 인정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본 뺨을 때리는 장면이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우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또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했다.

CP의 10부작 팟캐스트 시리즈 ‘세대 세뇌: 트랜스젠더 전투의 내부’(Generation Indoctrination: Inside the Transgender Battle)는 팟캐스트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 시리즈는 ‘Summit Ministries’와의 공동 주최로 지난 3월 ‘First Baptist Dallas’에서 CP의 첫 공개 행사로 열린 ‘젠더 이데올로기의 가면을 벗기다: 어린이 보호, 트랜스젠더리즘에 맞서기’(Unmasking Gender Ideology: Protecting Children, Confronting Transgenderism)의 원동력이 됐다고 한다.

지난해 10월에 데뷔한 CP의 사회 평론가 브랜든 쇼워터(Brandon Showalter)가 진행하는 ‘세대 세뇌’는 트랜스젠더 운동의 뿌리와 영향, 가족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을 조사한다. 이 시리즈는 또한 성별에 대한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 부모들에게 희망과 조언을 제공한다. 시리즈의 2부는 올해 말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CP는 또한 이안 지아티(Ian Giatti)의 글 “텍사스 대형교회가 ‘크리스마스의 선물’ 공연에서 성육신을 찬미하다”(Texas megachurch glorifies the incarnation in ‘Gift of Christmas’ extravaganza)로 ‘Critical Review’ 부문에서 4위를 차지했다. 텍사스주 플레이노에 있는 프레스턴우드침례교회(Prestonwood Baptist Church)에서 공연된 이 뮤지컬은 약 1,000명이 출연한 가운데, 합창단과 라이브 오케스트라 등으로 꾸며졌다. 지아티는 이 공연을 “시각적으로 놀랍고 성경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인터뷰 기사 부문에서는 라이언 폴리(Ryan Foley)가 농구 선수인 에네스 칸터 프리덤(Enes Kanter Freedom)과의 인터뷰로 4위를 차지했다. ‘NBA 선수 에네스 칸터 프리덤이 그의 인권 옹호의 대가를 나누다’(NBA player Enes Kanter Freedom shares the cost of his human rights advocacy)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프리덤 선수는 에르도안 대통령 정권 하에서 터키에 있는 그의 가족이 직면한 투쟁과 차별에 대해 설명한다.

한편, EPA는 미 복음주의 출판 산업을 위해 헌신하는 가장 큰 조직이다.

이미경 기자

## 전미히스패닉 교계 수장 “미국 위한 기도, 어느 때보다 절실”

지난 4일 미국 전역에서 열린 국가 기도 날(National Day of Prayer, NDP)을 맞아 미국 히스패닉 기독교 지도자가 “미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지금 2023년이 더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올해 국가 기도의 날 행사는 4일 저녁 8시(동부 시간 기준)부터 30분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야고보서 5:16)’라는 주제로 텔레비전, 라디오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계됐다. 또한 NDP 자원봉사팀을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서 각종 대면 행사가 일제히 진행됐다.

전미히스패닉기독교지도자협의회(National Hispanic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NHCLC) 회장인 새뮤얼 로드리게스 목사(캘리포니아 뉴시즌교회)는 행사를 앞두고 CP와의 인터뷰에서 “한 국가로서 우리는 이러한 길을 걸어본 적이 없다. 그것은 도덕적 상대주의, 문화적 퇴폐, 전례 없는 갈등과 불화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NDP 방송의 공동 진행을 맡은 그는 “2023년 전국 기도의 날은 우리가 미국 실험(American experiment)이라고 부르는 이 사상의 발전과 관련하여, 막대한 정신적, 도덕적 무게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각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과 회개, 희망을 위해 기도한다. 진실을 위해, 거짓을 이겨내고, 사랑을 위해, 증오를 잠재우고 미국의 문제가 간증으로 바뀌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로드리게스 목사는 “미국 사회 전체를 괴롭히는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다. 어둠의



미국 국기가 걸린 워싱턴 DC의 유니온 스테이션 ©Caleb Fisher/ Unsplash.com

설계자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며, 하나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의 자녀들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이념적, 사회적 구조의 표적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정치적, 문화적, 이념적으로 매우 분열되어 있다”며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라는 이념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국가 기도의 날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영적) 각성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DP 태스크포스 위원장 캐시 브랜젤은 로드리게스 목사와 함께 기도의 날 방송을 공동 진행했다. 브랜젤은 성명서에서 로드리게스의 참여를 환영하며 “NDP 태스크포스는 수십 년 동안 이념을 지휘하고 관리하

는 특권을 누렸으며, 미국을 위한 공개 연합 기도를 동원하는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브랜젤은 “로드리게스 목사는 진정한 기도의 용사다. 서로와 이웃, 국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미국의 영혼을 위해 함께 방패를 들고, 영적 전투에 뛰어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청년 선교 단체 펄스(Pulse) 창립자인 닉 홀은 CP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기도의 날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당부했다.

그는 “성경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한다. 누가 백악관에 있든, 우리는 누가 왕위에 계신지 안다. 또 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 지혜와 신앙적인 조언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면서 “그들은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원하지 않을 직업을 갖고 있다. 따라서 비판하기보다 그들과 가족 및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NDP 사전 녹화 방송 제작을 지원한 프레이닷컴(Pray.com)의 공동 창립자 매트 포터는 CP에 “미국에서 정신 건강 위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비극이다.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진정으로 미국의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서 “Pray.com을 통한 방송이 미국 전역의 수백만 명에게 전달돼 그들이 구주를 바라보며 대화하도록 일깨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혜진 기자

## 미 남침례회, 지난해 745개 교회 개척…120여 교회 새로 가입

미국 남침례회(SBC)가 지난해 74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26개 교회가 교단에 새로 합류했다고 2일 뱀티스트프레스(BP)가 보도했다.

SBC 교회 개척 보고서 ‘2022년 클래스(Class of 2022)’에 따르면, 개척한 745개 교회 중 106곳은 재건되고, 교회 캠퍼스 46개가 설립되어 2022년에 총 917개 교회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로써 2010년 이후 남침례회가 개척한 교회 수는 공식적으로 1만 개를 넘어섰다.

SBC 산하 ‘북미선교위원회’(North American Mission Board, NAMB) 케빈 예젤 회장은 BP와의 인터뷰에서 “해마다 개척 교회가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어 항상 흥분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개척된 교회의 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년간(개척교회) 생존율이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하다. 목표는 수년간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들을

보며, 교회가 필요한 더 많은 지역사회에도 달하도록 배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가 모델의 성공 사례 중 하나는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라이프 커뮤니티 교회이다. 이곳은 2022년 노아 매든 선교사를 파송하여 웨이머스 지역 주민들의 우울과 약물 중독 치료를 돕고 있다.

NAMB 산하 교회 개척 부서 ‘샌드네트웍’(Send Network)의 벤스 피트먼 회장은 “최근 수년간 우리 교회들이 교회 개척의 사명을 중심으로 결집한 방식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며 “열방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며, 교회가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고, 제자를 삼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다”고 했다.

NAMB가 교회 개척을 확대한 비결 중 하나는 샌드네트웍과 각 주 협회회의 긴밀한 파트너십에 있다. 플로리다 침례교 협의회는 교회 개척을 강화하기 위해 샌드네트웍의 교육, 코칭 및 관리 과정을 통합한

최초의 사례이다.

플로리다 침례교 협의회의 토미 그린 전 무이사는 “플로리다에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들에 대해 흥분된다. 개척을 지원하는 NAMB와 플로리다 침례교 협의회의 파트너십은 실로 놀라웠다”면서 “플로리다에서 매년 평균 7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샌드네트웍의 플로리다 모델은 개척의 지속과 생존 가능성에 도움이 되었으며, 교회 개척은 계속해서 협의회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2022년 9월 캘리포니아 침례교 협의회는 샌드네트웍과 더욱 확장된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교회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NAMB는 주요 사역을 기독교와 남침례회의 영향력이 가장 약한 남부 이외의 도시 및 지역에 초점을 맞춰 왔다. 2010년 이후 남침례회가 남부를 제외한 주에서 개척한 교회는 전체의 약 4분의 1(23%)을 차지한다.

김유진 기자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이미애 담임목사, 한주봉 담임목사, 이현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Angel's Church,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His Presbyterian Church.

송재봉 담임목사, 박자상 담임목사, JOE HONG 담임목사, ISAIAH LEE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LA하나교회, Metanoia Church of Southbay, New Start Community Church.

장경호 담임목사, 제임스김 담임목사, 남상권 담임목사, 김성현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The Well Church,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In Christ Christian Church.

안상희 담임목사, 오상규 담임목사, 김창곤 담임목사, 차권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남가주예수사랑교회, 남가주은혜선교회, 늘웁장로교회.

강은덕 담임목사, 김영일 담임목사, 정용암 담임목사, 신용석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더섬기는교회, 랜초한인교회, 로고스라이프교회.

정달성 담임목사, 김명구 담임목사, 서민수 담임목사, 장현석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말씀위의교회, 방주교회, 버몬한인교회.

지동근 담임목사, 윤혁 담임목사, 신현우 담임목사, 권태규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아름다운교회, 브림장로교회, 생명과사랑의교회, 생명의길교회.

장동훈 담임목사, 임상훈 담임목사, 이석기 담임목사, 김요한 담임목사. 선민교회, 섬김의교회,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성암교회.

정찬근 담임목사, 김지연 담임목사, 최주철 담임목사, 표희근 담임목사. 예심교회, 원웨이침례교회, 은혜가샘솟는교회, 은혜샘교회.

류연중 담임목사, 김성규 담임목사, 양수용 담임목사, 권희래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주백성교회, 초대교회, 카마리오열방교회.

조인 담임목사, 류광환 담임목사, 김용근 담임목사, 정하이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커넥션교회,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크로스교회.

오홍성 담임목사, 양국민 담임목사, 김요한 담임목사, 양홍규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Global United Church, 굿프렌즈교회.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평양에 교회와 학교, 병원 세운 선교사들

선교사들이 평양을 기록한... 도성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사역이 있었다. 첫째는 영혼을 구하는 교회 설립 사역과 둘째는 육신을 치유하는 의료 사역을 위한 병원과 셋째는 문맹에서 문명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장인 학교 설립이었다. 그로 인해 음란과 폭력이 난무했던 곳이 생명과 소망의 도성으로 변화되어갔다.

놀라운 점은 그 기간이 불과 10여 년 사이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 사역에 두 명의 초기 선교사가 있었다. 사무엘 마펏이 장로교 선교사로서 최초로 평양을 방문한 때가 1890년이었고, 감리교 선교사로는 윌리엄 제임스 홀이 1892년에 평양을 최초로 방문 개척함으로써 평양의 신속한 복음화에는 그만큼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뒤따랐다.

이 당시 1890년대부터 1900년대 초기에 그러한 사역의 기독교화(Christianization)의 환경 구축과 문명화(Civilization) 사역은 평양의 복음화에 토대가 되었다. 이는 놀라운 진행과 결실이었다. 그로인하여 평양이 크게 3개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장로교 계통에서는 사무엘 마펏에 의해 평양 중심의 장대제 언덕에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자, 선교사들이 사역의 범위가 크게 되어 평양 도심 서문밖 일대에 약 60만 평을 확보하여 그 곳에 '서문밖교회'와 장로회의 '캐틀라인 기념병원'과 베어드 선교사의 주도하에 '송의여자학교'와 '송실학교'와 '송실전문대학'을 건립하였고 선교사들의 거주지로 삼았다. 그 규모가 컸음으로 평양 주민들은 그곳을 서양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이라 하여 "양촌"이라고 불렀다.

이에 비해 감리교에서는 지금의 류경호텔이 있는 남산현 지역에 먼저 '남산현교회'를 개척했고 그 중심으로 하여 많은 교육 기관과 병원을 세웠다. 후에 미국 감리교 측에서 홀 의사 선교사가 세운 병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원과 '정진학교', '맹인학교', '남자성경학원', '광성학교', '여선교사 숙소', '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 선교사 사택 등을 그 지역에 걸림했다.

평양의 선교 전진 기지와 환경 구축은 장로교에서는 마펏과 베어드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감리교에서는 1893년 윌리엄 제임스 홀 의사 선교사 부부에 의해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설립되었다. 그러한 사역과 기관들의 계승하여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킨 선교사는 노블 선교사 부부로서, 1896년에 평양으로 발령받아 홀 선교사 부부에 이어서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평양에 감리교 선교 기지가 형성되었다.

평양에서 그곳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기관은 바로 병원이었다. 이 병원은 평양에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홀 선교사가 전염병으로 순직하자, 그의 부인 셔워드 홀이 남편을 기념하는 근대식 병원을 1897년에 크게 건립하였고 그후 폴웰 남사 선교사가 합류하여 보건 위생 사역이 크게 확장되자, 1931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 측에서는 연합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함으로 평양 서문안에 류경골에 "평양연합기독교병원"이 세워져 의료 혜택을 평양 주민들과 그 일대의 사람들에게 주었다.

감리교 노블 선교사 부부는 최초로 소녀 매일학교를 발전시켜 '정진여자보통학교'로 발전시켰으며 1927년에는 고등학교로 조선총독부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그 학교에는 기숙사 시설이 있음으로 이북 지역의 학생들도 유학하여 학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티투스 안드로니쿠스 (Titus Andronicus)"

고트족을 징벌하고 로마에 개선하는 티투스 안드로니쿠스 장군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개선장군인 티투스 안드로니쿠스는 자신의 아들과 포로들을 이끌고 로마로 왔습니다. 포로 가운데는 정복지 고트의 여왕 타모라(Tamora)와 그녀의 세 아들 그리고 그녀의 애인인 흑인 아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에 돌아온 티투스 장군은 전장에서 잃은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타모라의 큰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습니다.

티투스 장군의 동생이자 로마의 호민관이었던 마르쿠스가 형 티투스 안드로니쿠스 장군에게 로마 시민의 뜻을 전합니다. 로마 시민은 안드로니쿠스 장군을 새로운 로마의 왕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장군은 왕위를 거절하고 전 황제의 아들인 새트리니우스가 왕위에 오르도록 돕습니다. 왕위에 오른 새트리니우스는 장군의 딸 라비니아(Lavinia)를 왕비로 삼으려 하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라비니아는 이미 새트리니우스의 동생 바시아누스와 눈이 맞아 숲으로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라비니아를 아내로 맞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트리니우스 황제는 포로로 잡혀 온 고트의 여왕 타모라에게 매력을 느끼고 결혼을 했습니다. 타모라는 왕후가 되자마자 자신의 큰아들을 죽인 티투스 장군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티투스 장군은 황후의 마음도 모른 채 왕후의 가족들을 사냥에 초청합니다. 숲속에 들어온 타모라는 두 아들 키론(Chiron)과 드미트리우스(Demetrius)를 시켜서 숲에 있는 티투스 장군의 사위 바시아누스를 죽이고 티투스 장군의 딸 라비니아를 겁탈하고 라비니아가 일어난 상황을 알리지 못하도록 허와 두 손을 잘라 그 일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나아가 타모라는 바시아누스를 죽인 범인으로 티투스 안드로니쿠스 장군의 두아들로 몰아가 사형 판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장군은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심지어 그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자기 손을 잘라 왕에게 보내며 두 아들의 사면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곧 두 아들의 목과 자신의 손이 돌아오자



강태광 목사 월드케어 USA

티투스 안드로니쿠스 장군은 복수의 이를 갈았습니다.

불구가 된 티투스 안드로니쿠스 장군의 딸 라비니아는 아버지와 삼촌 앞에서 막대기를 입에 물고 '폭행, 키론, 드미트리우스'라고 땅에 씹습니다. 이것을 본 티투스 장군은 딸이 타모라의 아들로부터 당한 줄 알고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려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타모라는 왕을 설득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한 티투스의 아들 루시우스는 고트족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타모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데, 첫째는 타모라가 흑인 애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 둘째는 타모라의 두 아들이 바시아누스를 죽이고 라비니아를 강간하고 그녀의 혀와 양손목을 잘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시우스는 복수의 칼을 갈고 군사를 일으켜 로마로 진군하였습니다.

추방당했던 티투스 장군의 아들 루시우스가 고트 족을 이끌고 로마로 온다는 소식에 사투르니우스 황제는 당황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루시우스의 추방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루시우스를 로마의 황제로 추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황제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타모라도 위기를 느끼고 루시우스에게 사절을 보내 루시우스장군의 아버지 티투스 장군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루시우스는 타모라의 두 아들을 먼저 아버지 댁으로 보내면 그 만남을 수용하겠다는 전갈을 보냈습니다. 타모라는 두 아들을 티투스 장군 집으로 보냈습니다.

약속된 날이 되어서 황제와 황후가 티투스 장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연회가 배설되었는데 고기 핏자였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티투스 장군이 황제에게 '강간당한 딸을 죽인 옛 아버지의 처사가 옳은가?'를 물었습니다. 황제는 '그

딸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맘이 아플 것이니 딸을 죽인 것이 옳다'고 대답했습니다. 티투스는 그 자리에서 딸 라비니아를 죽였습니다.

황제와 황후는 놀라서 '왜 외동 딸을 죽였는가?'를 묻자 티투스는 자신이 죽인 것이 아니라 키론과 드미트리우스가 이미 딸을 죽인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황제가 노해서 황후의 두 아들을 부르자 티투스는 황후가 먹은 고기만두에 두 아들이 들어있으며 타모라의 목을 베었습니다. 황후가 쓰러지자 황제가 티투스의 목을 치고, 아버지의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본 루시우스가 사투르니우스 황제의 목을 잡니다.

티투스의 집안 연회에 참석해서 이 모든 장면을 보았던 마르쿠스 안드로니쿠스는 이 광경을 보며 로마의 혼란을 걱정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지나간 일들에서 티투스 장군과 루시우스가 당했던 무서운 아픔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수습할 사람은 루시우스 라고 말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야기를 경청하던 청중들은 "루시우스 만세!"를 외치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군중은 그를 황제로 추대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루시우스는 황제를 수락하면서 황제와 아버지의 장례식을 명했습니다. 탐욕스럽고 악한 타모라는 장례식없이 시신을 들판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또 악독하고 음흉한 타모라의 흑인 애인이었던 아론은 생매장하여 굶어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황제는 이런 비극이 없는 로마 건설에 힘썼습니다. 이상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티투스 안드로니쿠스>의 줄거리입니다. 이 작품은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소위 복수 비극입니다. 이 작품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큰 히트를 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너무 잔인한 작품이어서 학자들은 셰익스피어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로마 시대 권력과 잔인한 문화를 잘 묘사했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악함과 권력의 무상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군인들의 사기와 군대의 자긍심을 위해 적군을 무참히 살해했던 로마 군대의 잔인함은 로마 군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잔인함 때문에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dvertisement for 2023 US Christian University Fair featuring various institutions like Talbot Theological Seminary,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Grace Mission University, and others.

신사참배 85년을 맞아

# 미주디아스포라 대속죄 연합기도는 복음통일이라는 대부흥을 볼 것입니다!

## 이스라엘의 하나님 배교로 2차례 예루살렘성전파괴

솔로몬 성전파괴 - 바빌로니아에 의해 B.C 597년 아빕월 9일에,  
헤롯 성전파괴 - 로마제국에 의해 A.D 70년 아빕월 9일 같은 날 파괴되었다.



▲1907년 평양대부흥의 발원지 장대현교회



▲1938년 9월 9일 - 평양신사참배하는 장로교총회대표들

1907년 2월 "동방의 예루살렘"의 평양대부흥 후,  
1938년 9월 9일 신사참배 결의하여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교한 결과...

1948년 9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등장,

북한교회들이 파괴되고 지금까지 남과 북의 분단으로...

복음통일부흥으로 교회가 다시 복귀되고 세워지는 우선 일은 다니엘처럼 조상들의 배교의 죄악을 후손들이라도 깨달아 속죄와 참회하는 기도라 믿습니다.

### 미주한인 교회/성도들의 신사참배대속기도일

2023년 9월 3일(주일) ~ 9일(토): 공예배시 교회형편에 맞게 한 번 드림

회개를 통해 부어지는 부흥의 역사에 디아스포라 성도와 교회들이  
참여를 원하시면,

- 1)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 신사참배(\$25/권당)
- 2) 영어권 2세들을 위한 신사참배요약본과 31개 회개기도문(한/영)
- 3) 신사참배 배경과 해결 강의동영상 링크를 제공드립니다.

안내/등록 [www.gideonbrothers.org](http://www.gideonbrothers.org)



주최 : 미주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

주관 : 기드론동작선교

협찬: 기독일보

전화 : (360)305-2313, (425)775-7477 문의: dodream2006@gmail.com

강준민 칼럼

# 어머니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기는 아주 오래된 전설이 되었습니다. 모국에 가서 방문한 모든 식사가 맛있었습니다. 값이 싸고 맛이 있습니다. 배달해 주는 음식도 맛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6.25전쟁 이후로 도움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수많은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외국인들이 눈에 띕니다. 제주도만 일년에 천이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국 방문 중에 여러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어머니는 저와 가족들과 교회를 위해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 새벽 기도를 드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는 동안 3분의 2를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산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미국에 오실 때 어머니는 하나님으로부터 미국에 가면 교회를 개척하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 로고스교회와 새생명비전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목회자들의 목회

자가 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어머니가 처음에 그 기도를 드릴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계속되었고, 어느 날 저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애절한 기도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간절한 것은 어머니는 자녀를 잉태하고 산통을 통해 출산한 까닭입니다. 또한 자녀를 젖먹이고 키우면서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예수님 이름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끼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은 키우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기도를 통해 자녀를 사랑하고, 기도를 통해 자녀를 돌봅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잔소리가 아닌 기도로 자녀를 키웁니다. 어머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돌보아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형통케 해 주십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어려움을 멈추게 해 줍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염려할 시간에 기도합니다. 염려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맡기는 기도입니다. 어머

니의 기도는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더욱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언제 개입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가를 아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실수마저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녀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어머니는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중의 하나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아들이 방황하던 시절,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으로부터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니카는 눈물의 기도, 끈질긴 기도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방황했던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성자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함께 아버지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월 동안 저희 부부를 위해 중보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재호 칼럼

# 국가 기도의 날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로에서의 강력한 마음이 녹여졌고,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이 아멜렉 군대와 싸울 때 대승을 거두게 하는 강력한 무기였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탄생시켰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3년 6개월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땅에 큰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말씀과 나아가 기록교 2천년의 역사 속에서 기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셀수 없이 경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적의 능력을 창출하는 강력한 무기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5년 개봉되었던 War Room(전쟁의 방)이란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War Room(전쟁의 방)란 의미는 기도의 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주인공이었던 노인은 이곳을 전쟁의 방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 방이 자신이 매일 감

당해야 하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작전을 세우는 방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공인 노인은 War Room(전쟁의 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풍성하게 체험했는지 나누는 내용이 영화의 줄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를 제작한 알렉스와 스티브 캔들릭 형제의 사무실에는 "기적의 벽"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공간에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건들을 사진으로 담아 전시해둔 공간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4일(목요일)은 미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 기도의날(National Day of Prayer)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항상 그 뒤에서 국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국가 기도의 날은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제안하였고,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 의회가 공동 결의해 트루먼 대통령

이 공동 결의안에 서명함으로써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전통으로 지켜져 오고 있었는데, 1988년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5월 첫 번째 목요일을 기도의 날로 정하여 지금까지 매년 시행되어 왔는데 올해가 72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렇게 올해도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기도회가 열렸고, 특별히 남가주 한인교회들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목사)에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 많은 곳에 선 정치적 갈등, 경제적 위기, 사회적 혼란 등 거대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타락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두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는 이와 같은 기도의 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미국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영적회복과 부흥이 다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해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호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르크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어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예루살렘 교회 최초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여론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리더인 베드로까지 잡혔고 곧 죽을 운명에 놓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했고, 절망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은행 파산에 따른 금융위기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

식이 팽배합니다. 사회 전반에 가득한 윤리 도덕적 붕괴와 함께 인종간의 갈등과 증오 범죄와 총기사고 등이 난무합니다. 무엇보다 낙태나 동성결혼 합법화로 무너진 신앙적 가치관으로 인해 교회는 공적 무대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비기독교화, 탈기독교화 현상이 미국 전반에 가득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 나빠서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한 야고보나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믿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도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백하기를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심각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므로 이겨 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행12:5) 당시 초대교회는 한 번에 3천 명, 5천 명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나뭇 재물과 권력이 있거나 다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만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급진적인 사람들은 베드로가 있는 감옥을 급습해서 구해내자고 하거나, 뇌물을 주거나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자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서는 사람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현재까지도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북군을 대표하여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군을 이끌었던 탁월한 장군 ‘로버트 리’가 있는 한 북군의 승리는 어렵다고 전망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북군이 승리한 것에 대해 주변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에게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네! 그런 명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리고 링컨의 수고를 치하하는 참모들에게 ‘아닐세, 치하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지요. 승리를 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앞드려 감사를 드리세!’ 이것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정신병 치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생이 역전된 이유입니다.

우리들도 문제와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다음 세대와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지영 칼럼

###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다 (1)



안 지 영 교수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부교수

나는 성경번역 선교사였습니다. 23년을 위클리프(Wycliffe) 성경번역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번역을 하려면 신학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번역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정식 신학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 한 학기 동안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 두었습니다. 한 마디로, 신학 훈련을 받지 않은 평신도가 파푸아뉴기니의 과하티케 부족 언어로 신약을 번역하여 2000년 6월 10일에 봉헌한 거지요. 80년 대의 한국 교회의 정서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지요.

나는 1980년에 성경번역에 헌신하고 그 이듬해부터 2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고서 1982년에 성경번역 훈련을 위해 달라스 근처에 있는 위클리프(Wycliffe) 성경번역 선교사 훈련 기관인 SIL(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에서 언어학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로 살기 시작했지만, 당

시 한국 교회는 ‘선교사는 곧 목사’여야 한다고 믿었기에 교회 후원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게 하도 어려우니, 내가 속한 한국 선교 기관의 대표 목사님께서서는 우선 신학교를 다니면서 동기를 만들어, 후원 받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평신도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평신도도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내 나름의 신념(?)이었지요. 이런 면에서 내 아내가 대학 시절 다녔던 내수동교회 박희천 목사님이 참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성경을 깊이 풀이해 주시는 목사로 잘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면 당연히 신학을 한 선교사를 후원하실 텐데, 평신도인 아내와 나를 신뢰해 주시고 후원하셨으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서 후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아직 평신도 선교사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선교는 몰라도 성경번역이라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하기에 성경에 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를 만족시키려면 신학교에 가는 것이 어찌하면 마땅한 것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실, 나는 성경번역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기 전부터 개인 차원에서 성경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IVF라는 학생선교 단체에서 개

인 성경 연구 방법을 훈련받았습니다. 수년에 걸쳐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길을 찾던 나로서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 훈련을 받는 중에 매주 여덟 시간 정도를 성경 연구에 투자해 보면, 나중에 놀라운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조언이 내게 깊게 다가왔었지요. 그래서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주석은 수학 문제 해답지와 같은 거니, 성경 연구에 주석을 사용하지 말라. 사용하려거든 모든 연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용도로 써라. 대신에 성경 지도, 성경 사진, 성경 시대의 배경, 등등 성경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라. 성경은 다양한 언어 번역본과 한글 번역본을 사용하여 본문을 비교하여 보라.” 이런 지침은 성경 연구 훈련 기간 내내 들었고, 실제로 그런 자료들을 사용하여 성경 연구를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운 대로 나 혼자 해보니,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훈련 때 배운 것을 겨우 흉내 내는 데 그쳤으니,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중도에 그만둘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만 같아서 계속 밀고 나갔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이때부터 성경 연구에 관심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 헬라어로 본문을 읽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당시 일주일 동

안 헬라어를 가르치는 강습소에 가서 기초 과정을 수료하고서, 연구할 본문을 헬라어로 읽는 시도를 꾸준히 했었지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 연구를 하면서 기록한 대학 노트가 꽤 많이 쌓이더군요. 아직도 몇 권은 남아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하면서도 내가 성경번역 선교사가 되리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그동안 알고 싶었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재미에 푹 빠져버린 거지요.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했는데, 이제는 나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습니다.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알아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말합니다.

그러다가 아직도 자기 말을 표기할 수 없는 언어가 많다는 것과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족이 많이 존재한다는 게 온당치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성경번역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개인 차원에서 성경을 연구해 온 경험이 성경번역을 위한 훈련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성경 본문 해석의 틀을 큰 문맥이라는 틀에서 접근하는 법을 배워 내 개인 성경 연구에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나의 성경 연구에 깊이가 느껴지더군요. (계속)

원하트 워십 x 김윤진 간사

# Oneheart Worship Conference'23

## WORSHIP CONFERENCE

5.27.토 1-5pm "예배자와 찬양팀을 위한 워십 컨퍼런스"



**김윤진 간사**  
(전) 한성교회 예배인도자, "예배하는 이에게" 정규1집 발매



**채운성 목사**  
에배를 예배드기, 예배 회복을 위한 컨텐츠 제작팀 유포워십 대표



**심택근 형제**  
(전) 한성교회 메인 건반, 영국 리즈 음악원 (재학)



**이실라 전도사**  
찬양인도자, CCM 아티스트, 보컬 트레이너 및 Silas Music 운영



**3P**  
Oneheart Ministry (피터박 목사)



**김윤진 간사**  
(전) 한성교회 예배인도자 "예배하는 이에게" 정규1집 앨범

### LIVE WORSHIP 집회

5.26.금 7:30pm  
찬양 | 김윤진 간사 X 원하트 워십

### 5.27.토 6:30pm

찬양 | 김윤진 간사 X 원하트 워십 X 지역찬양인도자



**고창현 목사**  
토론토제일장로교회 (담임) (전)한국지구종교회 (전)남/월로이목장 센터장



**존 최 목사**  
Dallas Baptist University 세미교회 협력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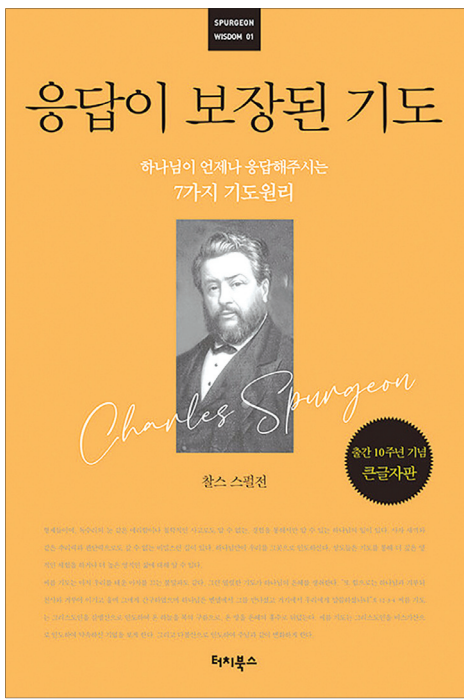
- 저녁집회: \$30
- 컨퍼런스: \$60
- All Pass: \$80
- 온라인 사전등록 oneheart-usa.com

213.347.5080 | lynnkimoneheart@gmail.com | oneheart-usa.com



[크리스찬북뉴스서평]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는 기도

#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펀전, 직접 보여준 비결은...



국내에 소개된 스펀전의 책은 주로 설교 집이다. CH북스에서 나온 설교전집 시리즈, 구약과 신약 인물 설교, 구약 설교노트, 신약 설교노트, CLC에서 출간된 십자가, 기도, 재림, 고난주간, 십자가, 성찬식, 부활절, 크리스마스 메시지 등이 있다.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스펀전의 저작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CH북스, 2009)>, 그리고 지금은 절판된 <시편강해>일 것이다(생명의말씀사, 1997-2002).

사실 <응답이 보장된 기도> 역시 스펀전의 설교 모음집이다. 편집인 김태희는 “이 책은 이러한 그의 기도생활에 고갱이로 꼽을 만한 설교 7편을 가려 뽑은 것입니다. 무려 3,500여개의 설교 가운데 원리가 될 만한 내용을 선택해 공들여 번역했습니다(8쪽)”라고 밝혔다. 엄선한 스펀전의 기도에 관한 설교를 책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큰 유익을 준다.

7편의 설교이자 이 책 7장의 제목은 각각 다음과 같다. ①주님의 길을 깨닫기 위한 기도 ②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기도 ③응답이 보장된 기도 ④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 ⑤낙담을 극복한 믿음의 기도 ⑥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도 ⑦주님과 연합된 기도.

전반적으로 두 가지 뚜렷한 스펀전의 문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 정교도적이라는 것이다. 단 한 구절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풍성한 말씀의 의미를 독자에게 깨닫게 한다.

둘째로 탁월한 표현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스펀전이 사용하는 성경 속 비유와 예시, 일상 예화는 설교를 아름답게 빛나게 한다. 그의 글은 읽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가볍게 읽을 수는 없다. 독자들 가슴에 새기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문장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가령 스펀전은 이렇게 권면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멩에를 ‘쉽게’ 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그 도우심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모두 삼손처럼 되고 말 것이다. 우리의 머리털이 깎이지 않는 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자를 찢을 수도 있고, 가자의 문짝을 옮길 수도 있고, 이방 군대를 궤멸시킬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면 우리는 벌레처럼 아무 힘도 없다! 그와 같은 재앙 속에서 우리는 탄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도하라.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심으로 나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60-61쪽).”

개인적으로는 스펀전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자녀에서부터 가장 악한 죄인의 자리까지

지 낮아지는 것이 기도의 합당한 방식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얻는 수단이라고 말한 부분이 정말 좋았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나의 위치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빈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펀전이 말하는 ‘보장된’ 기도 응답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헛된 바람이 아니다. 하나님 뜻으로 내 뜻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를 빚어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심한 통곡으로 구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신 것처럼, 응답이 보장된 기도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이 되게 한다.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앞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벅차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저한다. ‘어차피 안 이루어 질텐데...’라고 결론내린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약속에 단서를 다셨다. “너희



찰스 스펀전.

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요 15:7)”. 기도는 먼저 관계다. 주와 우리 사이 친밀한 관계, 한 뜻을 품고 주가 원하시는 것을 나도 간절히 원하는 하나된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응답이 보장된 기쁨의 수단이다. 스펀전의 <응답이 보장된 기도>를 읽는 모든 독자가 더 많이 더 풍성히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조정익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응답이 보장된 기도**  
찰스 스펀전 | 성경의 역  
터치북스 | 236쪽

**“나는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 스펀전 -

확신있게 기도하고,  
꽃밭같이 응답받자!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지혜를 배운다

영국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침례교회 목사 찰스 해던 스펀전(1834-1892)은 기도보다 설교로 잘 알려져 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까지 불린다. 설교(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기에 사람을 칭송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회중 앞에서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사람 중 하나로 스펀전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스펀전의 설교 비결에 관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묻고 연구했겠는가? 흥미롭게도 스펀전은 어떤 사람에게 그 비결을 직접 보여준 적이 있었다고 한다. 바로 스펀전 자신이 설교하는 동안 큰 방에 모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스펀전의 설교 사역 전체가 이 책 제목처럼 ‘보장된’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다.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전서 5:7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1 PETER 5:7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3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토마스 콜, 생태계의 질병과 회복

# 인간처럼, 피조 세계에도 해방과 치유가 필요하다

죄, 피조물 속 하나님의 선한 목적 왜곡시켜 인간에서 하나님 분리, 소외와 절망 따라와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하나님 분리시킬 때, 자연을 한낱 '자원'으로 왜곡시키게 될 것

“아픈 지구에 건강한 교회가 있을까?” 이 말은 하워드 A. 스나이더(Howard A. Snyder)가 『피조물의 치유인 구원』에서 던진 질문이다.

세상이 아프면 교회도 아프며, 교회 역시 세상과 분리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저자는 특히 생태계가 위기에 처한 세상에 직면하여 어떻게 기독교가 회복에 앞장설 수 있는지 성찰하였다.

미술에도 생태계의 문제를 고민한 화가가 있었다. 토마스 콜(Thomas Cole)이 그 주인공이다. 그에게 ‘허드슨 리버스쿨’의 창시자란 기존의 인식에서, ‘생태계의 돌봄에 주목한 화가’라는 새로운 평가가 내려진 것은 오래 되지 않았다.

토마스 콜이 뉴햄프셔 화이트 산맥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한때 울창한 야생 지역이었던 이곳이 인간의 거주와 동시에 산림 벌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콜은 <화이트 산맥의 노치라고 불리는 산길의 전망>(1839)에서 집, 헛간, 도로 같은 인간 거주 흔적을 흐리게 하는 대신, 배경의 산, 단풍든 숲 등을 늠름하고도 화사하게 표현하였다.

그는 전면에 벌목된 나무 이미지를 강조하였는데, 좌우 측면은 각각 언제 베어 버렸는지 모르는 고사목,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가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장면은 야생성을 간직한 배경과 대조를 이룬다.

칼 카서로우(Karl Kusserow)는 이 작품을 미국 생태의식의 성장을 보여주는 예로 소개하면서, ‘환경적 불의(environmental injustice)’가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집중하였다.

토마스 콜이 자연 개발과 파괴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은 그가 대지의 ‘모신(母神)’, ‘가이아’를 섬기는 등 우주숭배에 빠지거나 신성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자연을 중시한 이유는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좋다고 선언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궁극적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콜이 살던 시대만 해도 청교도들은 신대륙에서 이주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는 반면, 창조 세계의 돌봄까지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신대륙에 이주한 사람들은 헨리 소로(Henry Thoreau)와 존 뮤어(John Muir)의 책을 읽었고 ‘허드슨 리버스쿨’ 화가들의 그림에 매료됐으나,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사랑의 산물’이라는 통찰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다. 안타깝게도 천교와 돌봄의 대상이라기보

다, 점령의 대상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한 예로 헨리 아리(Henry Ary, 1807-1859)는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 콜을 멘토로 삼았던 그는 콜과 생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그의 <허드슨 강의 광경, 뉴욕>(1852)은 공장, 회색 하늘,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나무가 있는 허드슨 강 주변을 보여준다. 공장이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공장과 가정에서 방류하는 폐수로 인해 강은 부영양화되고 하늘을 뿌연게 오염시키고 있다.

그림 중앙에 위치한 허드슨 제철소(Hudson Iron Company)가 바로 주된 요인임을 가리키고 있다. 그림에도 아리는 푸른 나무와 풀을 전경에 배치하여, 자연과 그 천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 이런 구도는 숲과 식물이 여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토마스 콜의 작품 중 생태의식이 두드러진 작품으로 <옥스바우: 폭풍우 후 매사추세츠 노샘프턴의 홀요크산>(Oxbow)(1836)을 들 수 있다.

코네티컷 강을 무대로 풍경의 전경은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야생 지대이고 그 너머는 문명화된 땅, 그러니가 농경지로 개간된 땅이다. 화면 왼편에는 폭풍우가 몰려가고 오른편은 맑고 청명하다.

즉 자연과 문화, 야생과 문명, 격변과 고요가 대비되어 있다. 작가의 의도는 화면 중경 언덕에 암시돼 있다. 구름 아래 야트막한 언덕 중앙에는 ‘Shaddai’, 즉 구약에서 ‘만군의 주, 전능자’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 문자가 새겨져 있다.

이 그림은 지금 신대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경작지 확보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긴 하나, 화가는 무분별한 남획과 훼손을 걱정하였다.

화가는 사람의 이기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 가치관으로 자연의 가치가 손상을 입고 있다고 보았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 같이 자연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고, 따라서 그것에 실제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우연히 던져진 존재처럼 착취한다.

자연에 가하는 폭력은 불가역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 번 위해(危害)를 가하면 원상태를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화가가 ‘만군의 주’라는 글자를 새긴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파괴에서 오는 팽팽한 긴장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토마스 콜, 화이트 마운틴의 노치라 불리는 산길의 전망(Crawford Notch), 102x155cm, 캔버스에 유채, 1839,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소장.



토마스 콜, 옥스바우, 폭풍우 후 노샘프턴의 홀요크산, 캔버스에 유채, 130x193cm, 1836,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피조 세계를 창조하였다면 인간은 타락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동료 인간으로부터,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했다. 죄가 야기한 양상은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즉 자연을 창조된 피조물이 아닌 ‘일개 사물’로 인식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F. 슈퍼의 말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지음 받은 우리의 동료 피조물’이며, 인간 존엄이 지구의 안녕에 의존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창조적으로 발현된 것이 자연이며, 그 위를 살아가는 온갖 생명체들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편 8편)”라고 노래하지 않았던가?

토마스 콜이 ‘전능자’를 강조한 것은 생태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창조주 안에서 찾았음을 말해준다.

죄는 피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왜곡시킨다.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분리시킬 때 소외와 절망이 뒤따라오듯,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을 분리시킬 때 우리는 자연을 ‘자원’으로 왜곡시킨다.

그러므로 생태계에도 예수님 안에서의 화

해와 치유의 복음이 선포돼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인간뿐 아니라, 그 분이 지으시고 ‘좋다’고 하신 생태계도 포함된다.

우리가 레슬리 뉴비긴(Leslie Newbigin)이 말한 ‘성취의 신화’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과 연결되고 자연과도 친해지는 관계 회복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분리의 상태는 치유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작품은 우리 주변 세계를 단순히 재현하는 것을 넘어, 우리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형성한다. 예술 작품은 생태 문제에 대한 일련의 데이터와 지표에 직면할 때 이 자료들을 정서적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 재구성하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다.

콜의 작품에서 보듯 예술 작품은 그것을 숫자나 통계가 아닌 당면과제로 바꿀 수도 있고, 그 심각성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나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콜의 그림은 땅의 소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는 전능자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온전히 치유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피조물 전체가 인간의 죄의 결과로 신음하고 있지만, 동시에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해방과 치유가 완전히 나타나기를 열망하며 기다린다. 이 그림은 인간처럼 피조 세계에도 해방과 치유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 상담심리학과 디렉터 모집 공고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상담심리학 석사(Master of Arts i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 디렉터로 재직하실 교수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자격요건:

- 기독교 분야 석사 학위(M.Div., M.A. in Theology, M.A. in Christian Counseling etc.) 취득자
- 상담심리학 분야 박사(Ph.D. in Counseling Psychology, Doctor of Psychology) 학위 취득자나 그에 준한 자
- 미국 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인된 기독교상담심리학하나목회상담협회의 1급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나 감독 자격 취득한 자 우대

### 제출서류:

- 국문 이력서
- 영문 이력서
- 자기소개서(경력 중심으로 작성):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하되 근무한 모든 기관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필히 기록 바람.
- 영문 강의계획서(Syllabus) 샘플 1부
-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증 및 성적증명서 영문 원본 각 1부: 졸업대학 사무실에서 직접 이메일 (stevehong@ptsa.edu)로 보내주거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로 우편 발송
- 목회자 추천서 2부
- 교수 추천서 2부
-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 제출기한:

- 2023년 7월 14일(금)까지
- 지원서류 수신 담당자와 이메일 주소: 최고운영책임자 홍성학 교수 | stevehong@ptsa.edu
- 모든 서류는 e-mail(PDF)로만 받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스포켄 반석침례교회 담임목사 청빙

워싱턴주 스포켄에 위치한 반석침례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 \* 남침례교단 회원이거나 가입가능한 자, 미국 내 합법 체류자 \*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존경받을 인품과 성실함이 있으신 분

- **제출서류** : 1. 이력서 (목사님/사모님)  
2. 자기소개서 (가족소개 및 가족사진)  
3. 설교동영상 또는 음성파일

- **지원방법** : 이메일로만 접수받습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 Jayyon4@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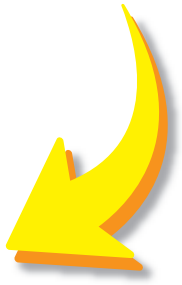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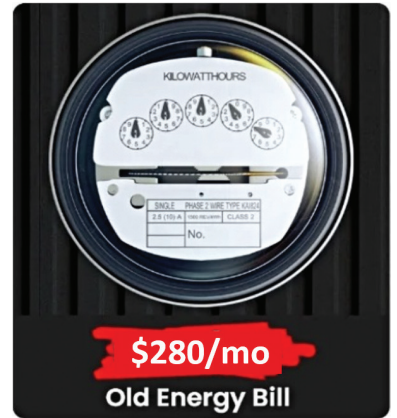


#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2023년  
대박**

**전기세가 11달러?!**



SCAN ME



**100%  
Made in  
USA**



Lic#854389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년 뒤 부터 Payment
- ✓ 전기료 50~70% 절감 (전기사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e**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50~70% 절감 \*\*\***

다른 솔라 업체에 문의 후 BTS 솔라에 연락해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십시오!!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50~70% 절감효과**
-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st Payment은 설치 후 바로 **1년 후 부터**
-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1~2달 안에 설치** 가능

###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CELLSPARTNER

TALK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